

조선시대 춤과 노래 등 흥미로운 놀이거리를 갖고 온갖 곳을 떠돌던 남사당패가 시공을 뛰어넘어 2000년대까지 찾아왔다. 연극을 전공하는 김형준, 김재화, 이경운 세 학생을 중심으로 발족된 세계 문화탐험대 아리코리아. 남사당패의 뛰어난 가무실력에 젊음과 패기, 열정과 끼까지 겸비한 이 연극도들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517일간 25개국에서 우리문화를 알리고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장기여행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세계를 내 품안에》란 책으로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행담 곁에 장구며 북, 징을 들고 신명나게 놀아보는 아리코리아의 모습을 표현한 삽화가 유난히 눈에 띈다. 해학적이면서도 역동미 넘치는 그림을 완성한 이는 여행전문가이자 만화가인 조주청 씨. 이렇듯 《세계를 내 품안에》는 여행도 있으나 건축, 그림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하는 조주청 씨와 젊은 연극도들의 인연도 담고 있다. 여행전문 칼럼니스트의 공간답게 해골부터 동물 가죽, 박제 등 세계 여행에서 수집해 온 물건들로 이색미를 더하는 조주청 씨의 작업실. 그 안에서 “페루에 온 것 같다”는 아리코리아 대원들의 감탄을 시작으로 조주청 씨와 아리코리아의 여행이야기가 무르익었다.



신세대 남사당패 여행담과 여행전문가의 삽화, 책으로 만나니 신.명.남.이 배가되고...

《세계를 내 품안에》 쓴 아리코리아와 삽화 그린 조주청씨

• 왼쪽부터 조주청 씨, 아리코리아 김재화 씨, 김형준 씨.



조.주.형. 제가 알기로 그런 여행은 우리나라에선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 그리기 전 글을 읽으면서 어떤 학생들일까, 얼마나 고생들을 했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전 그림도 그리지만 본래 여행 칼럼을 쓰는 게 본업인데 일로 다녀서 그런지 세계여행을 해도 아리코리아만큼 다양한 재미를 느끼고 오진 못했어요. 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겪었을 상황과 기분을 상상해 보고 편하고 재미있고 결코 무겁지 않은 삽화를 그려보려고 애썼죠. 처음엔 출판사 쪽에 자료사진이 왜 이렇게 없냐며 뭐라 했는데 글을 읽다보니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도둑맞았더군요.(웃음) 입어당 어록에 보면 진짜 여행을 하려거든 카메라 없이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한거예요.(웃음)

김.형.준.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여행책을 읽어봤죠. 이렇게 직접 뵈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웃음) 사실 출발 전부터 꼭책이 아니라도 좋으니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들 정도라도 메모를 해두자고 했어요. 글은 저희 모두가 돌아가며 함께 쓴 건데 활자화된 걸 보니 색다른 감동이 느껴지네요. 선생님께서 저희 공연 컨셉트와 잘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신 덕분에 예쁜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조.주.형. 중앙대 연극학과 학생들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연극원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코리아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친구들도 있더군요. 아무리 연극이란 공통분모가 있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융화돼 여행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텐데... 그리고 여행경비를 공연수입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책에 적은 출발계획들이 정말 사실인가요?

김.재.화. 그렇죠. 지출경비의 80퍼센트 이상을 공연수입으로 해결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800만 원을 썼는데 비행기 비용을 빼고 나면 400만 원을 지출한 셈이죠. 그렇다고 매일 굶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구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태국, 인도, 스위스, 이탈리아 등등 수많은 곳에 계신 분들이 공연을 보고 호의를 베풀어준 것까지 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움을 받은 셈이거든요. 가령 아비뇽에 계시는 한인이 저희를 위해 다음 목적지에 계시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주시면 그곳에 계신 분은 숙소나 공연할 곳을 알아봐주셨죠. 이렇게 저희 공연취지에 공감한 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을 때 자기 분야의 일을 하면서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는 꿈만 갖고 시

작한 일인데 우연히 알게 된 분들 덕에 그 꿈이 이뤄진 거지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인 데다가 연극에 미친 친구들이니 더운 아프리카부터 추운 독일의 가을, 겨울을 이겨내는 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나 실상 이들의 이야기 곳곳에는 죽도록 고생한 경험담이 만만찮게 담겨 있다. 까마귀마냥 목이며 팔이며 온통 땀과 때로 범벅이 돼 시커먼 얼굴로 도시를 헤매기도 했고 그러던 중 한 사람은 체력이 바다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만났다. 비단 체력뿐인가. 각국의 각양각색 사람들을 상대하다 도둑도 맞고 인도의 어린이에게 사기도 당하는 등 신명나는 공연 뒤엔 이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도 왕왕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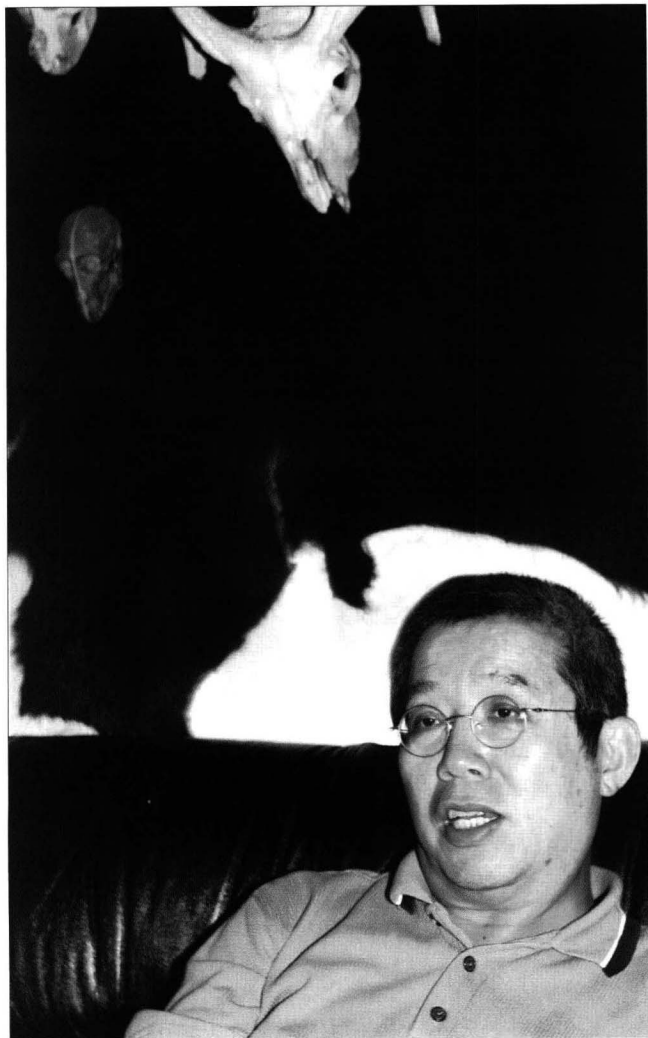
김.형.준. 체력소모도 그렇고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대원들끼리 융화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군요. 저희 마당놀이 <사마장자와 우마장자>를 각색해 공연하면서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자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무엇보다 팀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컸죠. 개성 강한 아리코리아 멤버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또 연습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일찍부터 지쳐 저희와 떨어진 팀원들도 있었죠. 그런 경우엔 그 역할을 맡아줄 또 다른 멤버를 구해야 했는데 그런 일들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재.화. 전 여자니까 성추행 같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친오빠 같은 경운, 형준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또한 다룰 악기나 공연 때 필요한 장비들을 갖고 떠나는 여행이라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세계 각국 각지에서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우리끼리 다투기도 했죠. 제일 귀했던 게 고추장 같은 한국음식이었는데 새로 연락이 돼 저희와 뒤늦게 합류한 대원이 고추장을 마구 먹으면 “그만 먹어. 우리 먹을 줄 몰라서 지금껏 안 먹고 지냈잖나?”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죠.(웃음)

조.주.형. 제 여행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여행이었군요. 전 중학교 때 김찬삼 씨가 쓴 여행기를 보고 막연하게나마 여행을 꿈꿨어요. 지금은 주로 혼자 여행을 다니는 편인데 인디애나 존스에 나올 법한 오지를 아주 좋아하죠. 《세계를 내 품안에》를 보면 대단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던데 그걸 읽으면서 단체여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행지에선 이기심이 이타심보다 커지지요.



《세계를 내 품안에》아리코리아 지음 | 샘터 | 366쪽 | 값 11,000원



《세계를 내 품안에》를 보면 대단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단체여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행지에선.....이기심이 이타심보다 커지지요....

여행중에 저 사람을 배려하고....내 이기심을 죽여야지 생각해 보지만...

그게...절대...안 되.죠....

여행중에 저 사람을 배려하고 내 이기심을 죽여야지 생각해 보지만 그게 절대 안 되죠.

김.형.준. 전 아리코리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된 건데 제가 이번 여행을 추진한 것은 어느 날 문득 무대가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규칙이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희 연기자들과 관객 사이의 벽을 허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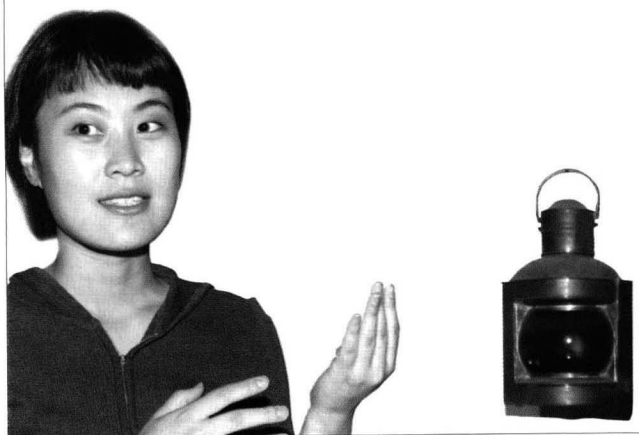
아리코리아의 여행은 대한민국 문화사절단이란 부담스런 명목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감념으로 한국 젊은이로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몸짓과 노래로 전하고 다른 세계 사람들과 소통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떠난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설프게 《사마장자 우마장자》를 공연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원들은 합숙을 해가며 사전연습을 준비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었는데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타악 문화에 익숙한 그들은 아리코리아가 전하는 신명나는 리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공연도 공연이거니와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냐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과리 거리를 걷던 중 쇼팽물 앞에 걸린 우리 영화포스터 앞에서 매진행렬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온다.

김.형.준. 튀니지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공연했을 때 인근 마을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즐긴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브라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열정적인 남미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타악기 연주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학구파들도 많았지요.

조.주.형.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많이 알려졌잖습니까. 책을 보니 아리코리아가 출발했을 때 전 베네수엘라 쪽에 있었던더라고요. 우리나라 승전보를 다른 세계에서 듣게 됐는데 정말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김.재.화. 맞아요. 저희는 인도에서 이스라엘 친구와 함께 그 소식을 접했어요. 박지성 선수가 승전보를 울렸는데 그땐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조.주.형.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여행을 할텐데 여러분만큼의 재주도 없고 장구며 커튼과 같은 무대 세트 등 필요한 장비들을 짊어



지고 다니는 건 꿈도 못 꿀 것 같아요.(웃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니 해낼 수 있었던 일일 겁니다. 전 공연은 본 적 없지만 현재 아리
코리아 2기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김.형.준. 그렇죠. 얼마 전에 2기가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며칠 후에는 아리코리아 1기처럼 공연을 하러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엔 저희만큼 고생하는 경험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사전에 한국에 있
으면서 공연할 장소를 물색하고 숙소며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거든
요. 고생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때보다는 보다 완성된 공연을 보
여드릴 수 있을 테지요. 아리코리아는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공연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까진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재.화. 아리코리아 2기가 떠날 때가 되니 괜히 제 마음이 상송
생송하고 설레고 그렇더구요. 전 곧 졸업을 생각해야 할 시점인
데 이번 책을 보면서 제 삶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
다. 단순히 연극을 하고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경험
의 폭도 넓혀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저희 책 이전에도 국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국악을 알렸던 이야기를 담은 책
이 나온 걸로 압니다. 꼭 연극이나 음악 등 예술분야가 아니어도 좋
아요. 저희 책을 읽으신 분들이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
계를 무대로 끼를 발휘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조.주.형. 저도 언젠가 아리코리아 공연을 꼭 보고 싶네요. 여러
분들처럼 고생스럽게 여행하는 일은 힘들테지만 저도 새로운 것,
새로운 세계에 관심이 많으니 앞으로도 여행 다니며 글 쓰고 만화
도 그리고 관심이 가는 분야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생각입니다. 그
리고 보니 우린 여행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 할 일이 많다는 데서
 닮은 점이 많군요.(웃음)

공연장이 따로 있으랴. 마음 닿는 곳에 여장을 풀고 짙어진 악기 꺼
내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면 그곳이 바로 공연장이다. 2000년대
를 배경으로 신세대 남사당패가 된 아리코리아의 《세계를 내 품안
에》를 펼치면, 민족의 노래 아리와 티베트 불교사절단이 세계 각국
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하러 올랐다는 아리산에서 따온 '아리' 에
'코리아' 를 덧붙여 만든 그들의 이름만큼 즐거운 난장소리가 들린
다. 좌절도 있지만 쓰러졌다가도 굳건히 일어나 달렸던 젊은이들
의 구슬땀이 만들어낸 즐거운 이야기소리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